

# 한국불교사 개척한 선구자

### 불교사학자 김상헌 교수 별세

#### 7월 21일 동국대 병원서...심근경색 원인

한국 불교사상 연구의 대가인 김상헌 동국대 교수가 향년 66세의 나이로 7월 21일 오전 8시 30분 별세했다.

탁월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던 김 교수의 갑작스런 소식에 학계와 불교계에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김 교수는 최근 가슴이 답답해 검사를 위해 17일 동국대 일산병원을 찾았으며 오전 중 검사 후 병원에 머물던 중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세연이 없었다.

김상헌 교수는 1965년 효당 스님의 제자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교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김 교수는 경상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한국불교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와 한국교원대 교수를 거쳐 1997년 동국대 사학과 교수로 부임, 올해 2월 말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삼국유사 연구의 권위자로 김 교수는 신라불교사, 삼국유사, 조선불교사, 사찰 연구, 한국 차문화사, 근현대 인물연구 등

고대와 근대를 넘나들며 120여편의 논문과 20여권의 책을 집필하며 학계를 이끌어 왔다.

특히 원효와 의상 연구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1994년 출간한 <역사로 읽는 원효>는 지금까지 원효 연구 성과를 반영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최고의 입문서로 꼽힌다. 또

삼국유사·원효 연구에 큰 업적

원효 관련자료 일본서 발견 공개

고대~근대 논문 120편 저서 20권

2000년 출간한 <원효연구>는 '원효학도들의 필독서'로 불릴 정도다. 김상헌 교수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원효 관련 자료를 일본 등 외국에서 발견해 국내에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1991년), <신라의 사상과 문화>(1999년), <역주 삼국유사>(2003년),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2005년), <8세기 동



아시아의 역사상>(2011년),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문제>(2012년)가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2000년 뇌허불교학술상, 2001년 차문화학술상, 2006년 일연학술상 등을 받았기도 했다.

올해 2월 정년퇴임한 김상헌 교수는 퇴임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해왔으며 한국불교사 집필활동과 논문 발표 등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가장 최근인 7월 초에는 불이상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신라불교사 분야에서 사학적인 방법론으로 접

근하는 등 불교학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였다"며 "학계 원로로서 정년 하실 때까지 논문을 쓰시는 등 후배교수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대학 시절 김 교수에게 지도받은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도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이렇게 가셔서 안타깝다"며 "연구과제가 있으면 경우 등 전국을 적극적으로 다니셨다. 불교계와 신라사를 비롯한 학계의 큰 별이 가셨다"고 말했다.

<추모사 31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학술·문화재소식

### 월정사·한국불교학회 공동 여름워크숍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효표)는 '오대산 적멸보궁과 사리신앙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8월 19~20일 공동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 일대에서 진행되는 여름워크숍은 19일 입제식에 이어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의 '탄허스님과 오대산'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고영섭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제1부 세미나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자현스님의 '자장과 오대산 개창' △남부회 국민대 교수의 '자장과 한국불교의 보궁' △장미란 동국대 교수의 '한국 사리신앙의 중국적 전래와 특징'이 전개된다.

이평래 총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장성재 동국대 교수의 '한국 보궁의 변천과 사상' △이원재 동국대 교수의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 △원혜영 고려대 연구원의 '사리의 정의와 사리송배'가 발표된다.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2018 동계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자 축제"라며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 오대산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는 충분한 타당성과 의의를 갖는다"고 의미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사물올림, 아침·저녁예불, 불교요가 실수, 108 참회, 전나무 숲 걷기 명상, 적멸보궁 순례, 오대산 사고 순례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 금강대, '종파불교 성립' 국제학술대회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7월 24일 논산 금강대 분관 사이버강의실에서 제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파불교 성립기의 중국의 불교사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학자들이 5~7세기 중국 종파불교 성립기의 불교사상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사상의 맥락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유진 금강대 교수의 '육조시기의 판교사상', 리스룡(李四?)

북경대 교수의 '지론사와 북방불교', 성카이(聖?) 청화대 교수의 '지론학과 남북도 신앙', 왕송(王?) 북경대 교수의 '종파의 의미의 재정립의 필요성', 요시다 에레이(吉田 敬禮) 하나조노대 교수의 '선종사상 확립의 태동기로서 바라본 하택산회의 사상', 린젠귀(林? 麟)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의 '해소의 양론', 장규연 금강대 교수의 '원효 무성유정론의 모호성과 해석학적 곤경'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 조선 불화 '쌍림열반상' 500년 만에 귀환

군산 동국사, 7월 31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공개

일본에 약탈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불화가 500여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길)는 16세기(서기 100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불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을 7월 31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조선 불화는 부처가 열반에 들자 사리비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쌍림열반상으로 가로형 명화로 알려져 있다. 조선 불화는 일본 육선에서 경매로 입수했으며, 일본세관과 주일 한국대사관, JAL 항공사의 도움으로 비즈니스

특별석에 안치해 25일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동국사는 조선 불화 함께 와다나베 카잔의 조선통신사 가족수리도와 이인문 산수도, 김육균 행서 칠연절구, 의친왕 이강행서 칠연절구 등 4점도 공개한다.

한편, 전북 군산시 금광동에 소재한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지어져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2003년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 한국선학회 <한국선학> 제35호 원고 모집

한국선학회는 오는 8월 31일 출간될 <한국선학> 제35호에 수록될 원고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선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 예술 관련 논문

이다. 신청자는 한글(영문) 성명과 소속 직위 연락처 주소 등을 ananda@yonsei.ac.kr로 접수, 한글표와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02)2123-2400

노덕현 기자

## "만해와 간디, 독립운동 지향점 다르다"

김종인 경희대 교수, 제13회 만해학회 세미나에서

"만해와 간디는 현대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두 사상가의 모습에서 현대화된 한국과 전통문화에 기반한 인도의 현재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한국과 인도의 독립운동 및 민족 지성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만해 스님과 간디를 비교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7월 26일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3회 만해학회세미나에서 '만해와 간디' 주제발표를 통해 두 인물을 비교고찰했다.

이날 김 교수는 "만해와 간디. 모두 양국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지만 그 내면과 지향점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차이는 만해와 간디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두 나라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해와 간디는 민족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종교사상가였다"며 "특히

두 사상이 모두 불교정신을 사상에 담았는데 간디는 어릴 때 영향을 받은 자이나교와 힌두교에 사상 근간을 삼았지만 불교사상 또한 아울러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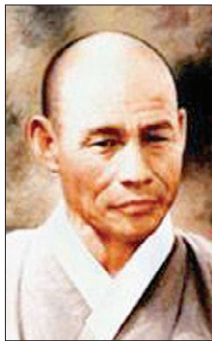
김 교수는 만해와 간디가 어려서부터 전통문화 속에 자랐으며 각각 불교와 자이나교에 영향을 받은 유년시절 환경의

만해, 불교·사회 현대화 꿈 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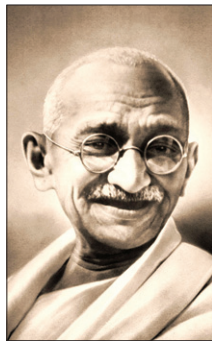
간디, 전통문화 회귀와 종교적 삶

유사성이 근대문명을 접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김 교수는 두 인물이 근대문화를 접하며 수용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른 사상전개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해는 1903년 시베리아에서 서구문명을 접하고 다시 30세에 현대문명을 배우기 위해 일본 시찰을 떠난다. 간



만해 한용운



마하트마 간디

디는 1888년 영국 런던에 유학하며 현대문명을 경험한다"며 "만해는 현대문명을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불교사상과 대중의 인식이 현대화하기를 바랬지만 간디는 윤리에 기초한 종교진리가 모든 영역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믿었으며 정교분리조차 부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반된 가치를 부여함에서도 이들은 각각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현대화 사고와 인도인들의 전통에 대한 사고를 대변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만해사상, 정신분석 등 다각도 고찰

이에 대해 앞서 '만해 사상과 현대사조'를 발표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만해가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등의 불교에 대한 기고문을 분석한 결과 만해가 국내불교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교 동향에도 이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며 "만해가 각국의 불교사상가, 철학자 등에 영향을 받은 점이 보다 깊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해학회세미나에서는 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의 '하이데거와 만해', 이도흙 한양대 교수의 '탈식민주의자로서 만해 한용운의 사상 읽기', 김종주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라캉의 정신분석으로 본 만해', 전형철 서울여대 초빙교수의 '들뢰즈와 만해의 님의 침묵', 백원기 동방대 교수의 '서구 초현실주의의 시와 만해의 시'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무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집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편을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레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풀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사담, 기든, 위루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사,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당,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장, 방앗간, 공방,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

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여성용 장지갑

## 평생부자지갑 달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달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달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영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 연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북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